4·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외로운 바위

「한줄기 뜨거운 불길이 내 영혼을 태웠다.
그 불이 글이 되어 여기 남는다.」

목 차

詩(고봉환)

외로운 바위 ····· 10
바보처럼 ····· 11
가시나무 ····· 12
여기 있나이다 ····· 14
사는 방식 ---------- 15
순교 ····· ----------16
시인의 고백 ····· 18
실존(實存) ····· 20
기도 1 ····· 21
기도 2 ····· 22
기도 3 ····· 23
존재(存在) ····· 26
동갑내기 아내 ····· 28
십자가 ····· 30
하나님의 쿠테타 ····· 31
장미 ····· 33
결혼 20주년 ····· 34

무언 ····· 42
유죄 ····· 43
꽃의 기도 ····· 45
새벽입니다 ····· 46
소리쳐 부릅니다 ····· 48
H님 ····· 49
너는 누구냐 ····· 51
외출 ····· 52
그 날이 오게 하자 ····· 53
오후 3시 ····· 56
간혹 ····· 57
그림자 ····· 58
아내 ····· 60
독백 ····· 61
우리네 이야기 ····· 62
단절 ····· 64
빈자리 ····· 66
끔찍한 일 ····· 68
도어록 ····· 70

수필(고봉환)

바보의 넋두리
수요일 아침 ····· 73
구들방 선생님 ····· 81
부끄러운 유물 ····· 84
오후 3시 ····· 86
回心과 召命 88
북청의 천둥소리 ····· 91

8·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 95
불효자 ·····
군선교 24- 그림 화일로 첨부 -
짬밥
십자가 군병되어서
바보 목회자
S병사
포병 옛 전우 이범우

수필(최귀숙)

나의기쁨 ·····
어머니 ·····
모과 ·····
백묵 ·····
산다는 것 ·····

마음의 글

고봉환의 詩

1999. 5.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

수상 작품 ″간혹″
″동갑내기 아내″

현재: 조치원에서 복음선교교회(가정교회) 개척 중에,
제21보병사단 포병 연대목사로 고방산 충성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외로운 바위

미시령 입구에 버텨 있는 너를 보면 마음 아프다.
어찌 너 혼자 그곳에 걸터앉아서
지나는 차들만 멀뚱멀뚱 쳐다보는지
네 동무들은 저기 설악봉우리 안에서 있건만

너는 왜 그리 청승맞게 미시령 끝에 걸터앉아 있는지.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기 싫은 것인지
너를 보면 방랑자처럼 보인다.

네가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집을 나와 설악산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려는
의무를 지닌 최후의 파수꾼으로 느껴진다.

너의 머리 숲은 마치 누구처럼 듬성듬성
너의 얼굴은 미소조차 보이지 않으니
어디가 코이며, 입술인지
이마의 시작과 턱의 마지막조차 알 수 없다.
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때마저 기억을 못하는지

네가 앉은 자리에서는 속초의 바다도 보이지 않는데
그 숱한 세월 한 자리에 있으면서 꼼짝 않는구나.
너는 바다와 싸워서 이리로 온 것이냐.
바다가 너와 싸워서 그리로 건 것이냐.

너를 뭐라 불러야 하니.
마땅히 불러 줄 이름이 없이
그냥 외로운 바위라고 하자.

바보처럼

양구 오가는 700km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다.
누구도 주의를 기우리지 않지만
그들은 잘도 버틴다.

흔적도 없는 바람결에 얼굴 부비다.
누구도 고맙다 말 않지만
그들은 의연하다.
아직 동트기 전까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아무도 수고했다 말 없어도
그는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지켰다.

오가는 길에 버린 것들
주워 담을 수 없고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줄 알지만
바보처럼
그 일이 좋아서 눈치도 없이
양구에 가기 위해
새벽길을 나선다.

오음산 정상
38선 비석 지나면
그제서 일어나는 태양이
지친 마음에 위안이다.

가시나무

산 속에
외롭게 자란 못난 한 그루 나무가 있다.
비, 바람 몰아쳐도
쉴 곳 없어도
헛된 바램이라 하여도
하늘을 향해 손을 휘젓는다.

어쩔 수 없는 움직임
땅 속의 진을 다 빨아 드려도
속에서
이길 수 없는 슬픔

바람이 지나면
서로 거친 피부를 문지르며
한 마리 새가 밤새 울어대고

농부는 날마다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더니
나무야! 나무야! 가시나무야!
울지 마라
무서워 마라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14·그리움에 목이메이고

다들 백합을 따라 가고
장미 앞에 서 있어도
가시나무야!
백년이 지나도 그렇게 있자구나

여기 있나이다

하찮은 그 일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제게 맡겨주소서.
모두 분주하고 큰일을 찾으려 할 때,
가장 작고 초라하여 주목받지 못한 그 일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사소한 그 일이기에 아무런 가치나 업적이나
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선뜩 맡으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
열심히 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하여도,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그 일이 좋습니다.
또, 지금껏 그 일을 해 왔습니다.
저보다 그 일을 잘 할 사람이 많이 있겠으나
다들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16·그리움에 목이메이고

어떤 하찮은 일이라도 맡겨만 주신다면
처음 부름 받았던 그 순수함으로 섬길 뿐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부귀도, 체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인내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는 방식

퍼덕거리며 날아든 나방
밖으로 내 보내도 또 다시 들어온다.
그에게는 방 안에 있는 게
죽음인 줄 모른가 보다.
제발 잘 살라고 내보내면
어느새 들어와 있다.

유리 창밖에서 닫힌 창을 열어달라고
절규의 몸짓을 하는 너.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냉랭하게 고개 돌려도
굳이 들어오겠다고 몸부림치는 너.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어느새 그 작은 틈을 찾아 들어와
내 앞에 퍼덕거리며 있는 너.

하기야
나를 밖으로 밀어 넣어보니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곳에서 쫓겨나듯
나 역시 자꾸 안으로만 들어오게 된다.
그래
너나 나나 사는 방식이 그런 가 보다.

시인의 고백

나는 도둑입니다.
남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만 훔칩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남들에게 바다를 어머니라 하였고
산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것을 가집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런 나에게 詩人이라고 부릅니다.

실존(實存)

고독의 외줄기를 저 멀리 던져 놓고
출렁이는 세월의 몸부림을 본다.

간혹
격한 몸부림으로
세월을 되돌려 보려하지만
무심한 물결은 허락지 않는다.

잔바람의 소리에도
놀라 일어설 것 같은
고독의 외줄기에
내 인생의 무게가 함께 던져져 있다.

물결 끝에서 달려 온 세월이
나를 흔들어 깨우면
외줄기는 함성이 된다.

던진 만큼
힘껏 잡아당기고 보면
들려지는 건
허망한 내 꿈 자락뿐이다.

깊은 물에 던져진 고독한 외줄기에
내 희망이 있다면

거두어진
그 외줄기 끝에 내가 걸려있다.

기도 1

불빛 한 점 없는 강단 앞에 나아가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통곡합니다.
육신을 놔두고 자유로울 수 만 있다면.
보채는 삶의 질고를 홀로 감당할 수 없기에

십자가 옆에 쪼그려 앉아 탄식을 토하다 보면
아!, 내 십자가

홀로 달린 고독한 예수 안에서
나 또한 철저히 버림을 당한다.

육신은 떠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그 날 나는 낙원에 있었다.

기도 2

잔뜩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고
눈물을 빼내어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산산이 흩어지도록
저 앞산이 무너질 때까지
엘리야의 까마귀가 놀래서 달려올 때까지

하나 하나 아는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이름을 불러 놓고 보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새벽안개를 뒤집어쓰고
무릎을 꿇고 보니 눈물만 납니다.

오늘.
거창한 제목으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 3

불타는 심정을 끌어안고

찬바람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 올
그 음성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외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가슴 속으로 터져 내린
눈물의 폭포 속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에게 갈 수 있다면

그러나
아직 길이 멀기만 하니

기도로
고백으로
그리고, 목숨으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길입니다.

존재(存在)

아,
내 사는 시간이 너무 어둡구나

하늘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이미
하늘을 잊고 살아온 지 오래된 이들이기에
더 이야기 할 수 없어

혼자서
좋은 때라 생각되면
그냥 어디든지 무작정 걷자

간혹
물 한 컵 건내는 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자

푸른 들판이 있으면
잠시 누워서
구름을 헤아려 세어보자

때로는
바다 수평선 위에
지팡이 세워 놓고
모자를 벗어
하늘에 경의를 표하자

그리고
내가 있었다는 작은 흔적뿐이라도
하늘에 감사하자

동갑내기 아내

내 동갑내기 아내
아침, 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는다.

무엇이 그리도 미덥지 못한지
내가 무엇이라도 사려면
내 팔을 잡아당기고는
저 멀리 가서 얼굴을 흘긴다.

내가 그것 좋은데 왜 그래
당신이 제일 좋아할 걸 하면
성난 음성으로 맞선다

그 뒤, 아내가 하지 말라 하면
하라는 것만 하리라 약속하지만

결국 그것을 사다 주면
아내는 헤~ 하고 웃는다.

내 아내 역시 여느 여편내와 똑같군.

십자가

위태로운 나무를 의지하고
쉬어빠진 텁텁한 포도주 한잔에
피로 눈물을 쏟으며
거칠고 쉰 음성으로 외쳐보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처절한 몸부림
그곳은 홀로 매달려야하는 적막한 곳
바람마저 고개 돌린
나무는 삶과 죽음의 경계이다.

큰 길에 서서
외치는 싸구려 복음의 큰 음성을 듣고
그리로 모두 몰려가니
오늘
골고다 언덕아래에는 십자가가 없다.

고난을 자처할 때는 버림을 당하고
영광만 구할 때는 칭송만 들리니
텅 빈 저 언덕에
오후 3시에 내리 쬐는 뜨거운 태양만
그분을 지킨다.

하나님의 쿠테타

기형도 1960.3.13-1987.3.9 만 29세

그를 기억하는 知人들은 슬픈 하늘에 대고 고래고래 대든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인들을 데리고 갈 때만 해도 이해를 했었다고

한국전쟁 후, 이념의 분열로 숙청당했다는
임화, 한설야의 비보를 들었을 때 그래 죽는 게 났지

해방 후, 삶이 궁핍해서 원고지 한 장 내 놓지 못해
명동 다방을 드나들 때에도
가난하게 사느니 먼저 가는 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말 할 수 있었다.
술값마저 얻지 못해 각혈하면서도
글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들에겐 하늘로 이사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군사정권의 가혹한 매질에 견디다 못해

인사동 찻집 한 칸 남겨 놓고 떠난
그이가 마지막 희생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아직 콧수염조차 제대로 깍지 않은 형도를 데려가다니
쒸인(詩人)에 대한 하나님의 쿠테타라고 항의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쒸인들에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장미

잔혹한 4월은
조금도 비켜날 줄 모르는데

한 떨기 장미는
온 밤을 지켰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흘린 피의 자리에

피어날 분신이라도 되듯

애끊는 가슴 쥐어뜯으며
이 밤에
점점 붉어져 갑니다.

결혼 20주년

제주해협을 넘어가는 날부터
바다의 물결은
온통 그녀의 눈물이었다.

머리 둘 곳 없는 좁고 컴컴하고
추웠던 신혼 방은
낮이건 밤이건
그녀에게 기도의 골방이었다.

문 열어 내다 본 바깥의
시커먼 돌들은
그녀의 영혼에 15년간 멍들게 한
자국들이다.

그녀는 어쩌다 그립던 엄마를 보면
웃었다.
지금은 고향 가까이 있어도
엄마가 없는 친정을 보며 울어야 하니
그 서러움은 더 크다.

이미 결혼반지도 없어졌고
어여쁘던 고운 피부도 지워지고
무능한 목사 남편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이
그녀의 머리카락은 더욱 큰 하얀 숲을
이루고 말았다.

그녀 곁에 놓인 돋보기안경은 말없이
못난 남편만 째려보고 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구름도 그때와 같건만
찬바람만 그녀 영혼을 찌르고
20개의 구멍을 남긴 채
휭 하니 저 멀리 달아났다.

찬바람이 남긴 20개의 구멍은
그녀에게서
지울 수 없는 간증과
영혼의 이야기이다.

나의 아기(詩)

아기를 가졌다.
누구의 아기냐고 묻는다.

아기를 낳았다.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나의 아기는 그냥 가진 것이다.
어느 날
하늘을 보고 가졌고
바다를 보고 품었고
산을 보고 짝을 지어서 낳았다.

내 아기를 보면서
이쁘다, 밉다,
누굴 닮았다 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아기가 이뻐서 낳은 것이 아니고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검사를 받기 위해
낳은 것이 결코 아니다.

나의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無 言

해 떴는가 하더니 어느덧 어둠이 깔리네
한 젊은이 지나가는가 하더니
그는 어디 가고 허연 먼지뿐이군

땀 흘려 뿌려 놓은 씨앗이 자라나는가 하여
기쁨을 보기 전에 또 다른 씨앗을 들고
그 텃밭에 나가는가
울다, 웃다, 자다, 일어나다
반복하다 보니 변하는 건 나인가?, 네인가?

문뜩 늦은 밤 높다란 하늘을 보니
달은 그대로 있는데,
울타리 넘어 살펴보니
옛 친구들 보이지 않고
웬 낯선 사나이 홀로 앉아 있구려

먼동이 떠오르면
그 사나이 여전히 일어나
자신의 텃밭에 나가네
돌 짝 텃밭에서 돌에 손이 찌여
피라도 흐르면 침으로 닦고
가라지가 보이면 그래도 알갱이가 되려나
愛情으로 바라보는 그 사나이
감 내놓아라, 팥 내 놓아라 하지만
무엇을 내놓은들 흡족케 할 수 있으랴……

유죄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진실을 알리지 않아서
진실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서
나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꽃의 기도

옛날에
날마다 아파하던 꽃이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 단 하루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꽃의 아픔을 치료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꽃에게는 아름다움과 향기는 없어졌습니다.

새벽입니다

서럽게 우는 어둠의 소리를 들으며
초봄 이슬이 지켜 온 새벽에
살그머니 그분 곁으로 가보렵니다.
얇은 겉옷 한 겹에 쌓여서
밤새 몹시 추우셨을까봐
내 고이 간직한 덧옷 하나 들고 가보렵니다.

지난 밤
그 아우성도 사라지고
내 걸음 소리만 들리는

그분이 누우셨을
그 앞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지 않으리라

결코 아무 말도 드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직 앞을 분간치 못할
새벽이라 그럴까요?

소리쳐 부릅니다

소리쳐 부릅니다.
성산포 수평선 너머에 들리도록
내 고통을 다하여 불렀습니다.

누구를 찾는 소리냐 하고 물으시면
날 두고 간 달님을 찾는다고 말할까요
떠나 버린 배를 돌려보려고 불렀다 할까요

누군가 돌아보면
그냥 소리쳤다고 말할까요

아니오
아니오
나에게 소리쳐 본 것이요

한라산 너머로 소리쳐 보았더니
한줄기 바람만
내 가슴속으로
들어옵니다.

38·그리움에 목이메이고

H님

이른 아침 북녘의 이슬이 걷힐 때면
온화한 몸짓으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그의 웃음이 크지 아니하나
병영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준다.

그대 그리 큰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타게 부르짖지 아니하지만
그대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내어 드린다.

그대는 예배당 안에서의 열성이 보이지 아니하듯 하나
그대의 영혼에 자리 잡은 영성은 더 큰 열성이다.

그대 자신은 아직 그리스도인 못 되었다 하지만
삶에 드러난 그대의 기도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열성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H님
그대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의 방식으로 오늘도 비추어주시구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댓글을 볼 때마다 핏대 올리는 이들이 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라 한다.

누구는 누구를 속였고
누구는 누구의 재산을 탐낸다 하며 울분을 토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모든 것이 악이라고
서슴치 않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래 그들은 그대 주장처럼
다 죽일 놈이라고 하자.-사실이 그러하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외출

복잡한 우주의 공간에서
쉴만한 곳을 찾으러
홀몸을 일으켜 세우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않는 곳으로
나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하다

때로는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책도 읽지 않아도 되는
노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시도 없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

거기에는
외로운 빈 영혼 하나 있으면 족하다.

그 날이 오게 하자

그 날에 성산 일출봉에서 붉은 빛으로 시작하게 하라
그 날에 밤 지키다 넘어간 달의 푸른 눈물을 담은 바다에서 시작하라
그 날을 오게 하자
그 날을 오게 하자

그들은 다시 바다로 가야 한다며
그들은 다시 바다가 되어야한다며
그 날을 기다려
너와 나의 꿈을 실어 오게 하자

그들은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땅에 있거라 하네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처럼 힘들고 먼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들의 푸른 바다는 붉은 황혼을 기다려 서 있고
우리는 붉은 황혼이 빗어둔 푸른 바다를 기다리네

달 들어가면, 배 들어오니
너와 내가
붉은 황혼 뒤,
숨은 그림자 반가이 맞이하라

존 재(2)

존재

길에 널린 돌맹이 하나라도
가벼이 보지 말라

쓸모없어 보이는 돌맹이라도
다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말 못하는 강아지라고
함부로 발길질 말아라

너는
숱한 사람에게서
단 한번도
채이지 않고 살고 있느냐?

오후 3시

저 수평선 끝에서 거친 숨 몰아쉬며 열둘 물결의 파도가 일어난다.
까뮈의 낡은 햇빛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양이다

내 마음엔 바다가 없으니 그를 숨겨줄 수 없다
저 수평선에 나아가 파도야 내게로 오지 말라 말 해 줄 수 없고……

파도는 까뮈의 낡은 햇빛을 피해서
헉헉거리며 내게로 도망쳐 온다.

그때가 오후 3시이다.
- 이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다.-

간 혹

간혹 가고픈 곳이 있소

부르튼 손,
손톱에는 시커먼 때,
구슬
딱지
여자아이들 고무줄

이른 아침부터
잠 덜 깬 친구들 모아
해지는 줄 모르고
헤집던 그 골목

눈이 많이 내리면
때때 옷 입을 때면

수요일 아침.
"그 사람이 보고 싶다"를 보다가
간혹 가고픈 곳

지금은
그 골목도 사라지고,
그들도 없지만–

그 림 자

순간에 지나친 너는 누구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 너는 스쳐갔다.
다시 지나면 잡아야지 하는 순간
너는 너무도 빨리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냈지만
너는 다시 내게 나타내지 않고
너와의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다시 나타난 너는 그전의 모습이 아니라
너는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곤 하지만,
누군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이에
너는 어느덧 또 저 멀리 사라진다.

그렇지, 너였구나? 하는 사이
다시 너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비구름 속에, 폭풍, 천둥, 번개 속에 숨어 버렸다.

네가 다시 나타나면
이번에는 꼭 잡고 말겠다.

너는 어디 있느냐?

비구름 걷히기를 기다렸다.
폭풍, 천둥소리가 멈추고,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
고개를 내밀고 찾아보지만
네가 어디쯤 숨어 있을까?
네가 어디쯤 있는지 찾아낼 도리가 없다.

너는 희망의 그림자요, 선택의 기회요,
변화의 요술쟁이가 아니냐?
나는 너를 찾건만 너는 나를 순간에 지나치고
여러 모습으로 나를 혼란케 하더니
정신 차려 보면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너 거기 있으면, 이제는 섯거라
더는 가지 말라 내 너를 잡고 말 거다.
하지만 너는 그림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어디에 숨었나 찾아 나선 이른 아침.

저 산 넘어 무지개 속에 있더냐?
비둘기 물고 간 잎새에 있었더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너를 찾다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어 지친 몸
물끄러미 한쪽에 걸린 거울을 쳐다보니
머리카락만 빠져나간 빈자리뿐.

아내

한 여자와 22년을 살았다.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 여자와 22년을 살고 있다.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한 여자와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세월을 살아야 한다.
그만큼 그 여자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이다.
한 여자에 대해 존경심과 측은함이 생겼다.
그 여자의 속내는 너무 신비하다.
그 여자에게 측은함을 느끼는 것은
바보 같고 철없는 이 남자를
하늘로 알고 떠받들고 믿어주며 살고 있을 때이다.
한 여자를 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떨리고
그 여자가 나를 불러 줄 때만 기다린다.
한 여자를 보기위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 여자도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그 여자는 나의 아내이다.

독백

독백 초의 길이와 삶의 길이는 같다.
촛불의 밝음은 숨의 길이이다.

촛농의 흐름은
그가 지내 온 거칠고 순박한 걸음의 흔적이다.
촛불의 흐릿함이 초의 역할을 멈추게 한다.

남은 초의 길이는 겨우 10cm인데
그 촛불마저 어서 꺼지라고 재촉한다.

촛불을 서둘러 끄려는 강한 바람 앞에
마지막 열정을 다 태우지 못하고
곧
쓰레기통에 처박힐
모질고 모진 헌 초의 10cm 몸통이여!

빛을 잃은 불모의 낯선 곳에서 어린 초에
그 생명을 주기위해 화려한 색채로 몸 한번 단장치 못했다.
자기의 몸을 태워가면서 어둠을 밝히기를 마다하지 않고
빛을 잃은 곳을 이름 없이 지켜왔다,
헌 초만큼 자신을 태우지 못하였다면
남은 10cm만이라도 탓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라.
헌 초의 남아있는 미운 10cm

이리 저리 터지고 곪아 흘러내린 촛농만 쌓이고…

이제 마지막 심지마저 열정으로

아낌없이 태우고 조용히 사라지리라.

우리네 이야기

슬픔이 없이 사는 이 누가 있으며
쉽게 되어 진 일이 어디 있으랴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슬픔은 하나씩 품고 있다.

아픔이 없이 걸어 온 이들마다
마음에 새겨진 응어리 있고
그 아픔을 쓰다보면 여러 권의 책이 되겠다.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아파하지 않으려는 이들마다
영혼의 응어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다.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아리랑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담배 연기 한 모금에 뿜어내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어찌 그게 사는 것이라 하겠는가.
슬펐기에 더 살만했고
아팠기에 더 살려했고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한숨 꺼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이야기인 것을.

어찌 기쁨만 있으며, 웃음만 있겠는가.
때로는 별거 아닌 일로 울기도 하고
너무 심각해서 웃기도 하니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못 견디게 보고 싶다가도
언제 보고팠느냐고 시치미 떼는

50·그리움에 목이메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 못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기에
그 고독 속에는 짙은 그리움만
이것이 우리네 사는 모양이지.

斷絶(단절)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날 부르는 소리는 없었다.
저렇게 킬킬 컬컬한 소란 속에서도
나를 부르는 이 없으니 참으로 이상한 거리이다

그 속에서도 난 저들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개나 있다
그러나 그 눈은 나를 볼 수 없는 슬픈 눈이다

내가 저들에게 악수를 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저들과 나 사이에는 익명의 거친 모습만 존재한다.

거리의 저들은 날 빼 닮았으나
그 사이엔 무거운 고독이 가로막아선 단절의 스침이다

나는 늘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외로움도 모르고 사는 모양이다

이 거리에서 나와 저들이 다른 점이 이것이다
그 이름을 단절이라고 부른다.

빈자리

아무것도 담아둘 수 없는 광주리가 되기보다는
무엇을 담아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빈 광주리가 되고 싶다.
누구든지 와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늘이 되어도 좋고
아무나 지나다 발 뻗고 실컷 자다 갈 수 있는 정자가 되어도 좋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해도 좋다.
오히려 넉넉지 않고 듬직한 어깨가 아니기에 미안할 뿐이다.

성난 빗방울을 퍼부어도 끔쩍하지 않는
이고 있기에 힘겨운 눈송이를 냅따 쏟아도 다 받아주지는 못해도
퍼붓지 마라, 쏟아 내리지 말라고 하지 않는 자리를 주고 싶다.

사랑하다 돌아선 애인을 잊고 싶은 이들에게는 내 뺨을 내주고
어버이를 잃은 저들에게는 어떤 울부짖음도 받아주고 싶다.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에게 어떤 돌을 던지더라도 모든 게 내 탓이려니 하고
받아주는 자리 하나 가지고 싶다.
그대여, 외롭다 하지마라, 슬프다 하지마라, 힘겹다 하지마라
여기 그대들이 잠시라도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씌우고,
짊어지게 할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
이곳은 바로 너의 빈자리이며, 내 빈자리이다.

끔찍한 일

세상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봄이 오면 즐겁다 하고
여름이 오면 덥다하고
가을이 오면 아름답다 하고
겨울이 오면 멋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끔찍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은 소란스러워졌고
온통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남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니는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혀 꼬부라진 발음으로
씨인(詩人)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보셨습니까?

도어 록

날마다 귀찮게 묻는다.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비밀이란 단어만 나오면 움찔한다.
번호가 수없이 많아 비밀도 아닌데
여전히 누구에게도 가르쳐줄 수 없는
비밀이라도 하나 있기는 한가.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아서 열립니다.
그대에게 나의 비밀번호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나요.
그대의 깊은 숲 속에
비밀번호를 넣고 긴 호흡 내쉬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못 들어오게 닫아버린 문 안쪽
거기엔 비밀번호를 아는 이 외엔
못 들어가는 금기의 그 무엇
문틈으로 무엇이 있는 가 살펴보지만
닫친 거기에는 보이질 않는다.

그렇지
비밀번호가 있으면
아무리 굳게 닫힌 그곳도 열릴 걸
힘껏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려하는데
차단되었습니다하고 차가운 소리가 들린다.

차단이라니 누가 누구로 부터인가
이제는 문 안과 밖이 막혔다.
비밀도 소용없고, 하소연도 소용없고
원시적으로 월담하여 열린 문틈을 찾아

다시 비밀번호를 만드는 수밖에

저 도어는
항상 새 비밀번호를 찾는 건 아닐까
괜한 의심을 해본다.

순교

한 글자 한 글자 수 놓은 듯 한 자리매김
너의 이름 새기려 올려놓은 바늘에
그곳에 네 이름을 대신 찔려 흘리는 핏방울로 수놓고 말았다.
뒤집어 놓은 천 조각 사이에 삐죽이 그려진 이름이
아련한 상념을 넘어 순교의 시간을 걸어 놓았다.

네 이름을 하와라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너는 이미 나의 심장에 꽂혀 있는 바늘이었다.
애초부터 너는 수를 놓으려고 내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심장에 피를 뿜어내려고 있던게야

후회한 들, 가슴 친 들 뭣하리
네게 찔려 놓은 바늘을 빼간다면 나는 죽어야 목숨일 것을
여인아 내 심장의 바늘을 빼지 말아다오
너의 달콤한 입술로 더욱 내 심장을 눌러다오

뿌려진 피자국은 내가 흘려서라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네게 주었어야 할 순교의 피였을게야

고봉환의 隨 筆

1999. 3.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
수상작 “수요일 아침”
″북청의 천둥소리″

바보의 넋두리

세상에 바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며, 생각이나 있겠는가?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바보의 말을 들어나 보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보의 뜻은 매우 정신적, 지혜, 지식, 신체적 건강,
사회 적응력에서 매우 부족한 사람이란 뜻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매우 바보입니다.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한 번도 큰 교회를 담임하거나, 사례비를 받아 본 적이 없고, 그저 내 세울 것은 가난하다. 못 생겼다. 아는 게 없다. 성질은 독불이다. 치과와 외과 병원 신세는 자주 지고 있다. 등등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바보인 것을 안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목회를 가서 일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고 서울의 그 교회에 그냥 있었다면 지금은 과히 교단의 중진으로 한 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주에서도 그리 오랜 15년을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나와서 서울 목회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그나마 바보의 탈은 벗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였기에 그런 걸 할 줄 몰랐고 그저 기도하고 적은 것에 충성하면 면류관을 받으며, 큰일도 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좋은 거, 큰 거, 높은 거, 이런 곳에 있을 때만 그에게 기회를 더 주고 유능한 인물로 판단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점을 미리 가르쳤지만 현실은 그런 성도를 바보로 봅니다.
제가 바보라서 사람들의 속성과 심리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은 "부름 받아 나선 이들은 어디든지, 이름과 빛도 없이 아골 골짜기라도, 소돔거리라도 가야 한다." 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소명이 제게는 있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이상하지요. 내 눈에는 현재 성도들에게, 군인 교회에 줄 것만 보이는데, 다른 목회자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제 눈이 이제 初老에 들어서서 그런 것일까요. 환상을 보는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누군가 잘못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보의 눈이 잘못이겠습니다. 늘 무언가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보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내가 정말 큰 교회의 목사로서, 내 생활의 충당만 된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털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생

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바보의 넋두리를 하는 것이지만.

바보에게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내 꿈은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속이 좁은 쫀쫀한 목회가 아니라, 내 교회 중심의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픈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진정 시설에 와 있는 그들을 품고, 같은 입장이 되어서 살펴주고 싶습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말하면 퍼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속아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욱 미련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왜 나라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높은 지위와 존경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기적이지 못하고, 약지 못하며, 정치적이지 못했고, 싹싹하지 않으며, 모을 줄 몰랐고, 올라갈 생각도 안하고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바보들은 늘 쳇바퀴 도는 형태를 보이더군요, 역시 나는 바보인

가 봅니다.

그렇다고 놀리지는 마십시오. 나에게도 자존감이 있으며, 나름대로 굴러가는 재주도 있으며, 때로는 큰소리 칠 줄 알 고, 앉을 자리, 눌 자리를 구별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회는 늘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제주도의 목회도 행복하였고 지금 군인교회의 목회도 행복합니다. 이 두 목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기적을 느낀다는 점과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런 역경의 목회를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원래 내가 농사를 못하고, 공구를 다룰 줄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껏 험한 일은 하지 않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풍족함이 있었고, 불편함 속에서도 자유로움이 다른 후배들에 비해 많았습니다.

비록, 육지에 나와서 공장에 가서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하였고, 기계 앞에 종일 서서 기계가루를 먹어보기는 하였지만 그런 고생 없이 어떻게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두가 주님이 달아보시는 연단의 과정이요, 주님의 복된 일군이 되라는 채찍이 아니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조금은 바보가 됩시다. 뻔히 아는 일이지만 모른 척하고, 그렇고 그런 일이지만 받아 줄도 알고, 과히 큰 도움은 아니지

만 때론 통 큰 척하고 쓸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이지만 진심으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영리하고, 비상한 인물들이 보기에는.

나는 바보입니다.
기회를 얻어 큰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보기에는.

나는 바보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고, 우호적 제스처를 보일 줄 아는 이들에게는.

나는 정말 바보입니다.
또 이렇게 주절주절 다 말해버리니 말입니다.

수요일 아침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슬며시 TV를 켠다. 그 시간에는 수십 년 간 혈육을 잃고 눈물과 원망, 서러움의 세월을 살아 온 사람들이 한번만이라도 엄마라고 불러 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목 메이게 할 때가 많다.

어느 해인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던 중에 "오빠 맞아, 왜 그렇게 늙었어" 하며 울부짖는 어느 가족의 만남 장면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1.4후퇴 때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쟁을 피하여 陸路를 따라 홀로 남하하셨고, 부산까지 오면서도 며칠 안에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부모의 고향이 이북인 까닭에 어릴 때부터 친척을 찾아 본 적이 거의 없어 TV에서 비쳐주는 만남의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고향이 어떤 곳일까, 북쪽에 계시다는 조부모와 아버지의 형제들, 여러 친척들은 어떤 분들일까 늘 궁금해진다. 아버지께 이산가족 찾기에 나가시라 하였더니 이제 찾아 무엇하겠느냐 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다.

명절 날 아침이면 우리 집 식구들의 외로움은 남다르다. 남들은 큰 집, 작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세배를 올리지만 특별히 세배 갈 곳이 없는 우리 가족은 부러운 눈으로 이웃집들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곤 하였다.

아버지는 결국 고향에 가시지 못하고 낯선 땅에 묻히셨고 내 호적에는 여전히 이북의 조부께서 호주로 되어 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함남 북청에 있는 우리 집 과수원에는 배가 익어서 떨어질 때면 마치 천둥소리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곁에서 듣고 있던 집사람이 한번만 더 하시면 백 번도 넘겠다며 빙그레 웃는다. 그래도 나는 그 말씀이 좋았다.

지난 1986년부터 아내와 함께 피붙이 하나 없는 낯선 제주도에 내려와 살았고 3년 지나서 아들을 보았는데 어느 덧 내 키를 넘어 자랐다..

명절 아침.

외아들 녀석이 "아빠! 우리는 세배안가요?"하는 질문을 할 때면 아버지의 눈물이 생각나면서 녀석에게 형제와 가까운 친척이 없다는 미안함으로 마음이 저민다.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는 외아들에게는 내가 보지 못하였던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아들에게 녀석을 소개하여 그들의 세대에는 서로를 기억하고 왕래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

실향민 2세이기에 겪었던 외로움을 아들에게는 반복하기 싫었기에 나름대로 매년 여름에는 온 가족이 육지 여행을 계획한다.

몇 해 전 여름에는 내가 태어난 부산을 떠난 지, 근 삼십여 년 만에 찾아가 보았다.

부산 청학동 조선공사 건너 편, 골목을 지나 언덕으로 올라가 보니 거의 옛 모습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그 언덕길은 길 양편에 절벽 미끄러움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철책 울타리가 그대로 있었다. 언덕 끝자락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태어난 집을 살펴보니 옛날에는 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벽돌로 담을 쳐 놓아서 도둑맞을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섯 살쯤에 집에 도둑이 들어 왔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집 앞에서 얼마간 있어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 안에 들어가고픈 마음을 포기하고 대문 앞에서 온 가족이 사진만 찍었다.

돌아서서 영도다리를 건너니 이전의 다리 옆에 새 다리가 놓여져 있고

옛 다리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멈추고 쉬면서 새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부산은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면 내 아들에게는 제주도가 추억이 되리라.

어김없이 수요일 아침이면 TV에 출연하여 만남을 이룬 이들이 "왜 나를 찾지 않았느냐?, 우리 언니 맞는데…" 하며 눈물을 흘리면 나도 어느 새 눈물이 나온다. 그런 나를 아내가 보면서 또 시작한다고 핀잔을 주지만 이미 흐르는 눈물과 콧물 때문에 휴지를 찾는다. 혹시나, 아버지의 고향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이 나와서 찾지 않을까.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행여 이북의 친척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움 때문이다.

TV에 나오는 그들은 오늘도 만나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건만 나는 언제쯤이나 저 북녘 고향 배 밭에서 아들과 함께 배가 떨어지면 난다는 그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구들방 선생님

유난히 좋은 날씨이건만 아들과 함께 방에서 아들의 과거가 숨어 있는 사진첩을 펼쳐 놓고 입씨름을 한다. 나는 아들이 자라 가는 모습을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사진기에 담아 두려고 노력한다.

아들이 막 태어나 눈을 뜨지 못하고 기저귀에 똥을 싸 놓은 모습부터 개집에 들어가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한참 웃었다. 어떤 사진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닮지 않은 이런 사진을 찍었냐며 다투기도 한다. 아들이 두 살 때, 5·16 도로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차 앞에 앉혔더니 갑자기 "나 어떻게 해!"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너무 놀랐고 그것이 첫 번째 소리였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한참 설명을 하였으나 두 돌도 안

된 아기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아들은 그간 찍어둔 여러 사진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는지 내 뺨에 뽀뽀를 한다.

그런 아들의 재롱을 받으면서 아들에게 아버지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씩씩하게 잘 키워야 할 터인데……"

아들은 나에 대하여 아빠가 목사라는 것과 책도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여름마다 육지 여러 곳을 다니고 보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학교에서 아빠에 대하여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하면 담임선생이 자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었을까?,

어렴풋이 기억하는 내 아버지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병약한 분이었다. 집에 계시는 날이 많아서 때로는 아버지가 남들이 이민 간다는 미국에라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버지는 동대문 도깨비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는데 찾아가면 얼른 집으로 보내려고 하셨다.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의문이 많은 것은 나를 영도다리 밑에서 주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였다. 6·25 전쟁 후인지라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 몰래 다리 밑에 버린 것을 울음소리를 듣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기분이 나쁘면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선 때도 있었다. 그 뒤로 의심이 생기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드려다 보았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초등학교 일 학년 때, 학교에서 가족사항을 써 오라는 통지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기록하는 것이 있었다. 내심 이제 진정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어라 쓰는지 함께 드려다 보았다.

아버지는 잘 쓰신다는 필체로서 붓글씨로나 펜글씨가 한 획, 한 획마다 힘이 있고 뚜렷하니 나중에 담임선생님이 보고는 감탄하였다. (이 일로 악필인 나는 많은 책망을 들었다)

아버지는 직업란에서 잠시 멈추고 "상업"이라 적은 후, 학교에 제출하라 하였다. "아!"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비참함이랄까?, 부끄러움이랄까? 설문지를 학교에 갖다 주지 않고 가방 속에 한동안 숨기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 아주 어린 기억에 아버지는 분명히 나에게 전직이 교사였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내심 직업을 교사라고 쓰기를 기다린 탓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여전히 무언가 말을 못할 거짓말이나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한층 더 가지게 되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궁금증으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였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일 학년이었으나 내 신상에 하여 분명히 알고 싶은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북의 가족,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고 싶다고 졸랐더니 다 컸다며 말씀을 해주었다. 사실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가 교사이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함남 북청전문학교 토목과 장학생이었는데 그때 교사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동란이 일어나 홀로 南下하였고, 부산에 와서 홍남에서 단신으로 내려 온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전쟁 중에 군 소집을 받고도 이북 출신이라 불이익이 있을까봐 기피하였다. 나중에 자수를 하여 거제도 반공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령에 의하여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는 기피자였다는 것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어린 나에게 교사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늘 집에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구들방 선생님"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한 것이다. 가끔 아버지에게 "구들방 선생님"이라고 별칭을 불러 드리면 괜히 웃으신다.

아버지의 북청전문학교 동기들은 나름대로 남한에서 뜻을 이루고 있는데 잠시 판단을 잘못하신 탓에 군 기피자가 된 내 아버지. 당시로서는 최고

학부와 지성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명필임에도 제대로 직장을 가지지 못하신 채로 고생하다 떠나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남기었는가?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셨던 내 아버지. 어떤 일에 결단이 필요할 때에는 우회로 뜻을 밝히셨던 소극적인 아버지. 그러나 결정되어진 일에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였기에 나는 마음속에 그런 성품은 닮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다.

특별히 나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말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 번 씩 방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묻지 않고 구입하라고 용돈을 건네주던 그 손길에서 아버지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곳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였으나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예 선생님"이라도 되어 있으시기를…….

부끄러운 유물

문구용 칼날을 물건을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그 속에 아무렇게나 있는 옛 동전들을 보았다. 국가를 식별할 수 없는 외국 동전과 군사 정부의 기념주화가 나의 무관심으로 긴 잠을 자고 있었다.

그중에서 유난히 커 보이는 제 5공화국 기념 동전을 보면서 그 시절을 잠시 떠 올려본다. 그때 神學대학생이었던 나에게 어찌 국가에 대한의 충성과 사회적 정의감이 없었겠는가.

전두환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치열한 데모를 앞두고 각 대학교마다 학생 비상지휘본부를 두고 시시각각 발표되는 外信을 즉각 번역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 현 시국의 상황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제대하고 복학생인 나와 동기들은 이번 데모에 참가하기가 곤혹스러웠다. 나이

도 있고, 이미 교회의 傳道師들이어서……

지휘부에서는 복학생 선배들이 도와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예비역들은 회의를 열었다. 결국 사회학과와 교육과 복학생들이 앞장서고. 신학과는 현직 전도사들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원자로 나서기로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당시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위장 대학생을 프락치를 심어 두었다. p라는 남학생이 장학생으로 편입을 왔는데 그가 바로 그런 임무를 맡았다. p는 졸업 후에 국가기관에 특별 취업되는 행운(?)을 누렸다.

드디어 D-DAY.

군사 정부를 반대하는 데모를 하기 위하여 남대문 앞에 서울의 대학생들이 학교 별로 위치를 정하고 남대문에서 서울역 앞까지 집결하였다. 이미 사회는 민주화 열망으로 민심이 흉흉하였고, 민주주의가 아니면 죽음을 요구했던 치열한 데모의 현장이었다.

그때, 갑자기 남산 언덕길에서 트럭 한 대가 진압군인들 앞으로 굴러 내려오더니 그만 몇 명의 희생자를 만들고 말았다. 불과 2-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도 군인들의 희생이 적지 않은 듯 싶었다. 군인들이 희생이 있자 데모대를 향하여 최루탄을 쏘면서 잔인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무장해제를 당해 피 흘리며 살려달라는 또래의 군인들, 예비역인 나와 동기들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이지만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군인들의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서 길에 누워 있는 학생들, 남대문 주변에는 깨어진 벽돌과 인산인해, 군인을 덮친 트럭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 때의 열기를 대변하듯. 우리는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대학생 중 일부는 이미 경찰에 갇혀 있는가 하면, 재빠른 학생은 어느새 종로와 을지로, 용산으로 도망치고 보이지 않는다. 어느 학생은 뺏은 것으로 보이는 방탄 마스크를 쓴 뒤, 진압봉을 들고 물러서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 우리 대학생의 의지에 달렸다고.

나와 동기들은 최루탄 연기가 덮여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살피니 후배 여학생들이 미처 몸을 빼지 못하고 무리에 갇혀서 우왕좌왕하더니 순식간에 달려 온 군인들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른 내 동기들은 소리를 지르며 누구는 누구를 맡아라하며 여학생 보호에 신경을 썼다.

주변을 보니 평소에 얌전하던 k양이 눈물을 흘리며, 재채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후배들을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켜야 하였다. 우선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제일 복잡한 곳으로 가야만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동으로 피하였다. 명동에 가자마자 아무 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비누를 달라해서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최루탄 냄새를 밀쳐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정권이나 학생들의 희생으로 담보한 민주주의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 이후로 대학에 휴교령이 발효되어 1980년 2학기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남산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간혹 벗들과 경춘선을 타고 등산을 다녀오는 것으로 내 대학의 마지막을 만들고 있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던 민주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이 있었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 지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세워졌다.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제 5공화국의 동전은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 효용 가치가 없는 화폐로서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기념주화가 오히려 歷史의 쓰레기가 되어 기념품 수집상들에게는 수집의 가치도 못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제 불혹의 나이도 지났고, 되 돌이킬 수 없는 삶의 비탈길에 서서,

내가 남길 책들과 기록들, 몇 장의 사진 속에서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歷史的 추억이 묻어 있기나 할까.

오후 3시

오늘도 편지를 쓴다. 내가 살려는 몸부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절하게 편지를 주간마다 보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편지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나는 주간마다 반복하여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보내는 그 일로 인해 나는 숨을 쉬고 있고 그 숨통으로 인해 오늘도 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쓰레기를 보냈다며 화를 내며 이런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다시는 받지 말아야한다고 거룩한 분노를 토한다.
그들은 나를 살리기는 길은 이런 쓰레기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들이 집어던진 죄 없는 편지들이 쓰레기가 되고, 그들의 깊은 침묵은 나를 정말 죽이는 특효약이 되고 있다.

여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팽겨진 채로 편지를 써야하는 나는 날마다 저들의 예언대로 죽고 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 순간마다 나의 그리스도도 역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리스도를 죽일 순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저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며, 나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저들만의 창으로 내 영혼을 오후 3시에 고정시키려고 달려든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호소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저들의 옹벽을 넘어서기에는 아직 내 목소리가 작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의 쓴 포도즙을 마셔야

한다. 나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 앞에 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죽는 그 날까지 편지를 쓴다. 지금은 내 영혼의 외침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훗날 수천의 메이라가 되어 온 천하를 뒤덮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기로 작정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으며, 부끄러움도 잊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누구의 가랑이든 기어가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갖은 악한 소문과 조롱에도 나는 견딜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며, 그곳에 달리신 이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오후 3시에 머물러 있다.

回心과 召命

20대 초반, 벌써 30년 전의 그 시간을 돌아본다.

물소리만 절절이 울어대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실 음성을 기다렸다. 3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분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렸다. 3일간 내 귀에는 물길이 울어대는 잔잔한 소리만 남았다.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있는 목청 다 내질러 그분을 찾았다. 새벽의 옷깃이 사라지는 그 시간, 급하고 강한 불덩이가 내 영혼을 덮쳤다. 내 영혼의 깊이를 잴 겨를도 없이 이리저리 헤집고 들어와 샅샅이 흩어 지나간 그 짧은 시간이 천년이었는지, 백 시간이었는지 느끼기 전에 이미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직 콧물,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그 깊은 황홀함. 그리고 확신에 찬 분명한 한 가지. 이제 내 모든 것 다 잃어도 두렵지 아니하다. 어디를 가든지. 어

떤 악한 역경을 만나던지 두렵지 아니하다.
아––– 평안, 이것이었다. 그리도 굶으면서 목마르면서 그리도 애타게 찾았던 것은 바로 소명이었다. 저 멀리 떠오른 태양은 이제 낯선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내 얼굴이며, 내 걸음을 비추어 줄 든든한 증거였다. 노아의 무지개처럼.
아무 것도 없어도 두렵지 않았다. 어떤 곳에서도 그분을 전할 수 있었다. 서울로 가는 행선지에 몸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배에 몸을 담았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아무 지원도 없이 그저 소명이라는 무기 하나만 가지고 갔다.
제주에서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初心을 잃지 않고 아무도 기억치 않아도 그날 받은 소명으로 살았다. 한 번도 아내에게 봉급이라고 준 적은 없어도, 교회에서 봉급이라고 주는 이가 없어도, 내 몸을 던져 맡은 일에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 실패자, 무식자, 비타협자라는 가슴서린 못 박는 소문들. 몇 번이고 제주를 떠나고 싶어도 마땅히 올 후임자가 없어서 눌러 있기를 여러 번.
주머니에 개척할 500만원만 있으면 개척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내 육지로 뛰어나올 때. 아, 도망자 요나였던가. 개척은 했으나 부흥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사와 낙망의 시간들. 더구나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하며 건강마저 잃고 나서야 또 한 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장탄식으로 기도하기를 숱한 나날들.
결국 도시를 포기하고 다시 부름을 받아 나선 곳. 20대의 젊은이들이 있는 군인교회로 왔다. 여기도 역시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곳. 내 모든 自費를 털어서 왕복 700km를 드나들기를 2년이다. 비로소 나에게 허락한 소명은 오직 하나님만 증거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북청의 천둥소리

요즘 들어 금강산 관광 소식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다. 그런데 어렵게 수 십 년 만에 열린 길이지만 실향민들은 선뜻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향집이나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몰라도 어떻게 관람으로만 갖다 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남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유람일지 모르나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에겐 그런 반쪽 귀향이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아버지는 함경남도 북청이 고향인 까닭에 유난히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우리게 된다.

6•25 동란으로 고향을 떠나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와 가정을 꾸렸고 평생을 속히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사셨다. 아버지는 부산 영도다리 건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어릴 때 나는 영도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신기해서 그곳에 자주 놀러갔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주 큰 눈깔사탕을 주시면서 억센 함경도사투리로 "조금 놀다가 엄마와

같이 집에 먼저 가 있거라" 하시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내가 여섯 살 때, 서울로 이사 온 우리 가족은 실향민 가호적을 하라고 하여 그후로 서울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가 몹시 외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느낀 것은 약주 한잔에 "번지 없는 주막"을 흥얼거리시다가 슬며시 잠드신 모습을 볼 때였다. 아버지께서 가장 밝은 모습을 보이신 날은 실향민들이 모이는 "북청 군민회", "함경남도 도민회"라고 기억된다. 이 날에는 아침부터 바쁘시다. 이발소에 다녀오시고 모처럼 이북에서 함께 공부한 전문학교 동창 명단을 보시면서 여기 저기 전화를 하시고 꼭 만나자고 하시는 모습에서 비로소 아버지에게도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덩달아 기뻤다.

한번은 온 가족들이 창경원에서 모였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청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도 뭉클한 마음으로 다가왔다. 기독교인이 되신 다음부터는 늘 늦은 밤 예배당에 가셔서 가족들과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통일을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 고향이 없다는 것, 아니 가고파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실향민들에게는 큰 슬픔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 외로우셨을 것이다. 장남이자 독자인 나는 이십대 초반부터 목회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다. 잠깐 서울에 나오거나, 같은 서울에 있어도 잠시 들리고는 일어서야 하였으니 그때마다 아버지 뵙기가 매우 민망하였다.

제주도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이다. 아버지께서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담당 의사가 아들을 찾는다고 모친께서 전화를 하셨다. 서둘러 서울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실신상태였으며 감각이 없으시고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였다. 전립선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가벼운 증세로 운명을 달리할 정도로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에 그 충격이 컸다.

두 달 동안 거의 서울과 제주도를 왕복하면서 병세의 호전을 기다렸으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담당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가족들은 병원과 끝까지 맞서서 원인을 밝히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法的 대응을 하자니 규명이 어렵고 단지 의사에게 어떤 불이익만 주어진다면 그분의 장래에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 드렸다. 다행히 병원은 法的 책임은 어렵지만 道義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호흡기 제거에 동의하자 아버지는 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씀 한 마디 못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가고파 하시던 북녘 고향 땅, 꼭 한번만이라도 고향 집 뒤, 배 밭에서 배 떨어질 때마다 들리는 천둥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로움은 아버지代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땅에 가까운 친척이 없이 남자 혈육이라고는 나와 내 외아들뿐인 우리 두 부자에게 "실향민 가족"이라는 말이 따라 붙으니 말이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도 없이 말없이 묻히신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두고 오신 고향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조를 참이다.

통일이 된다면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서음리 이망지리 덕일초등학교 서측 백 미터 옆에 있다는 아버지의 본가에 들러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천둥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모처럼 아내와 같이 짐을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밖으로 고개를 비쭉 내민 사진첩을 보고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넘겨보기 시작하였다.

누런 사진첩 안에는 내가 십대 학창시절, 모자를 벗은 채 까까머리를 드러내고 겨울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어느 곳인지 모르겠으나 學友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신발은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군화를 신고는……

또 다른 사진들을 보았다. 나보다 목 하나만큼 더 키가 큰 정윤권君이나 다른 또래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일 정도로 노숙한 김대겸君, 유독 영어를 잘해서 부러움이 되었던 번개 최광윤君, 그가 보았던 참고서 영어정해를 곁눈으로 흘겨보면서 나도 그 참고서를 구입하여 영어공부를 잘하여 친구를 이기고 싶었다. 나중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불광동에 살 것이라는 소문만 들었다.

벌써부터 펜팔을 한다면서 조회시간에 여학생에게서 받은 편지를 감추기 바쁜 김君, 그는 나만큼이나 키가 작았는데 그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자는 요청을 내가 거절한 일이 있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걸렸다.

당시에 학생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귀한 사진기를 들고 온 조君, 그는 그 때 이미 그 부친의 사진관에서 부사장(?)이었던 탓에 친구들에게 인기를 독차지를 하였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가게가 있던 곳을 찾았으나 이미 없어졌다.

사진 속에 손가락을 브이字로 펴고 자기만 잘 나오게 해달라고 보채는 김학성君의 모습을 본다. 그가 살았던 황학동을 몇 차례 돌아보았으나 도저히 그의 집을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른 아침 만원 통학 버스를 타고 보면, 만년필에서 잉크가 새어나와 옆에 있는 여학생 세라복과 가방을 온통 퍼렇게 멍들게 하였다. 그뿐인가 도시락에 김치를 반찬으로 넣어주는 날이면 학교에 갈 때까지 마음고생이 이

만 저만이 아니다. 이리 저리 휩쓸리다 보면 김치를 담은 유리병을 아무리 비닐로 봉하고 뚜껑을 확실히 닫아도 어느새 김치 물이 흘러나와 가방 속의 책과 버스 안을 온통 냄새로 진동시킨다.

그 시절에 만원 버스를 타는 것은 과히 전쟁에 버금간다. 조금 늦으면 버스 안내양 바로 앞에 손잡이를 간신히 잡고 가야 한다. 때로는 안내양의 잘못으로 버스 난간에서 길바닥에 짐짝 떨어지듯이 내팽개친 일이 어찌 나만의 경험일까.

학교에 가기 싫었고, 공부 시간을 지겹게 느꼈던 그 시절에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불같이 일어난다.

내가 유난히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아마도 부모가 이북에서 가족 없이 단신으로 남하하셨고, 친척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기 때문인지 모른다.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라는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벌써 강산이 한 바퀴 반을 돌 시간을 살았다. 그래서 사진을 보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들을 꼭 한번만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그리움으로 목이 메인다.

제주도. 내가 사는 성산읍에서 1시간만 나가면 더 갈 곳이 없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 아닌가. 육지로 나가려면 제주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부두에서 배를 타야한다. 그러니 더 갈 곳 없는 그 갑갑함이란 호랑이가 우리에 갇혀서 "어흥"하고 소리만 지르는 심정이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다양하게 구입하기 어렵고 꼭 필요한 물품이 없다면 주문을 하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고 타 지역과 연계된 교통의 불편 때문에 서울을 더욱 그립게 만든다.

물론, 제주도는 공기가 맑고 자연이 깨끗하다. 순수한 제주인의 마음 또한 좋은 점이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고 원기 넘치는 젊음을 그냥 좋은 환경에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다 넓고 다양한 문화와 계층을 만나고 또 작은 일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을 더욱 그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에게 많은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겠으나 자식을 따로 보내어 살게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나의 그리움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욱 서울의 거리가 나를 부르는 듯싶다.

내 아들은 그렇게 내 그리워하는 마음을 살피기나 한 듯 "아빠, 내가 나중에 다 해 드릴께요. 걱정마세요, 나는 어른이 되면 미국에 가서 살겠어요"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정보를 담은 책을 날마다 끼고 산다. 독자인 녀석도 외로움을 많이 탈 터인데……

서울에 간다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꼭 남산에 올라 장충단으로 가는 운치 있는 길을 꼭 걷고 싶다. 또한 창경원과 비원, 덕수궁은 물론, 북청군민회가 열리는 곳에 가서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향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아들에게 실향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통일이 되어서 내가 북청에 못 간다면 아들이라도 가야하지 않겠는가.

문득, 문득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고 혼자 저 멀리 달려가 있는 것을 느낀다. 아직은 추억을 찾을 나이도 아닌데……

불효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하나님나라로 가셨다.

그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프다는 내색을 하시지 않았기에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피곤한 기색을 내시면 힘든 내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하시지 않나 하는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원래 함경북도 함흥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셨다. 그의 인생이 바뀌신 것은 한국동란이다. 흥남 친척집에 다니러 왔다가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부두에 정박 중인 배에 이웃들에게 강제로 떠밀려서 승선을 하였다. 며칠만 지나면 고향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몇 시간인지 모르나 마냥 배를 타고 오다가 하선을 하고 보니 부산 땅이었다.

아는 이 없고, 귀하게 자란 막내둥이로서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마침 먼저 함경남도 북청에서 홀로 남하한 한 청년을 만난 것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외로운 남녀가 더 마음을 따질 겨를 없이 북녘을 바라보며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다.

어머니.

그분은 정말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셨다. 다음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는 손님, 싫어하는 이웃을 대접하기를 즐겨 하셨다. 하기야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니 젊은 모습은 참으로 미인이셨다. 또한 음식 솜씨가 좋아서 방문객들마다 아버지에게 좋은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칭찬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산 영도다리를 건너 장을 보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어머니는 먹을 것을 듬뿍 사면서 저녁에 찾아 올 분들을 맛있게 해주는 것에 행복감을 가진 분 같았다.

그러나,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 흔히 말하는 교내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회 임원, 지역 모임에 매사 나서는 것을 보면서 아버

지는 많은 염려를 하셨다.

아버지로서는 어머니의 활동을 지원할만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까닭에 반대는 못하고 거의 방임을 하신 것 같았다.

결국은 두 분의 싸움이 잦았다. 나는 여동생 3명을 데리고 약수동 뒷산에 올라가 달을 보며, 학교를 마친 후에는 되도록 그런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늦게 들어갔다.

나는 방과 후에 시간이 남으면 아버지가 계신 동대문시장에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는 사이 알게 모르게 어머니하고는 긴장이 쌓이고 좋은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벽을 쌓고 있었다.

대학을 들어가야 할 시기,

너무 생활이 어려운 터에 아버지는 주택부금을 적립한 것을 빼내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그만 소비하고 만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대의 상처였고,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증 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성격, 막내였던 환경 탓인지 항상 당신의 욕구를 먼저 채운 다음에 가정, 자녀를 돌아보는 기이한 습성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에도 돌이켜 보면 한번도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각인되어진 어린 시절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의의 의료사고로 먼저 하나님나라로 가신 후, 그 분을 아들인 내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 역시 어려운 목회지에서 苦戰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모셔야한다니 참으로 한숨이 나왔다.

매사에 손이 크신 어머니, 아끼거나 다음을 생각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님이 온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외상을 달아두거나 돈을 빌려서 큼직하게 상을 차려 대접을 하여야 편하신 모양이다.

매사에 아내와 작은 문제로부터 부딪치는 것이나 현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등등으로 나와 삼각대립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급기야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몸이 쇠약하여지자 나는 어머니를 큰딸 집으로 잠시 가 계시라고 하였다. 마지못해 가시는 어머니에게 나로서는 좀처럼 만져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생활비를 드렸다. 그리고는 다짐이라도 하듯이 오시라고 할 때까지 서로 조금 헤어져 살아보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만날 때는 화목한 관계를 가지자고 부탁을 드렸다.

그러는 사이 나는 이사를 하였고, 어디에 사는지 알리지 않았다. 알렸다가는 찾아와 아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舊正. 그래도, 어머니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 세배하러 큰딸 집에 찾았다. 너무 반가워하면서 당장이라도 따라 나서고 싶어하는 눈치를 본 나는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

며칠 후, 여동생이 다급하게 어머니가 매우 위독하다, 아마 두 달을 넘기시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나에게 어머니를 맡기려는 어머니의 엄살이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막내였기에 조금만 편찮으시거나,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화를 받은 이상 가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조금만 더 큰딸 집에 계시면 자리를 잡는 대로 모실 수 있을 것인데 걱정이 앞섰다.

어머니를 다시 모시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딸들과 아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정말 위독하다면 사위 집에 그냥 계시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계속 주저하자 아내는 무슨 소리냐,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장 모시고 오라고 나를 격려하고 현실을 받아드리자는 것이다.

마음에 결정이 되고 나니 한시라도 바삐 모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 늦은 밤을 가로질러 큰딸 집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막상 모시고 보니 병이 너무 깊었고 의사의 왕진을 부탁하고 진단결과를 들어보니 한 달을 넘기시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98·그리움에 목이메이고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고, 치매까지 들어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고 기동을 못하는 어머니.

그것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메어지는 가슴을 쓸어 담아야만 하였다. 결국은 저렇게 삶을 정리하시는가.

결국은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을 넘기실 것이라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서의 모성애를 좀 보여주시지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미치자 애증이 교차되었다.

오일 째 되는 날.

조금 차도가 나아 보이면 마주 앉아서 잘 안 나오는 불분명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유언을 하신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면 자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 달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려운 일인지라 주저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에 의과대학 담당자와 의사의 증인 하에 다시 어머니의 의사를 여쭈었더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셨다.

“어머니.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비록 불편한 마음으로 내 곁에 오셨지만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달라면 내가 어찌 유언을 받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아시는 어머니가 나에게 지금까지 잘못한 일들을 다 잊고 용사하자는 말씀도 하셨다. 그도 내 기묘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찌 삶을 정리하는 어머니에게 더 못해드려 죄송하지 그런 것으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불효자입니다.

나에게 오신지 이제 열흘.

주일 새벽이기에 2시부터 일어나 성경 본문과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방을 들어가 보니 어제와는 사뭇 다른 거친 숨소리를 내셨다.

급히 딸들에게 전화하여 가급적 빨리 와서 어머니를 뵙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유난히 큰손녀를 좋아하셨는지 정신이 있을 때마다 큰손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막내딸이라며 나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막내딸의 가정과 장래를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여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시켜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가 어머니 집이니 의식이 없어도 좋으니 이렇게 이삼년은 살아 계시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내 마음의 사랑이 부족하였는지 불과 몇 분 뒤, 거친 숨을 거두셨다.

딸들이 급히 달려 왔으나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안실에서 겨우 잠든 얼굴을 보고 오열을 토하였다.

사랑하는 어머니.

불효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닫혀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가난한 삶이라도 어머니 좋으신 일들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효자입니다.

짬밥

군인교회에 갈 때마다, 병사들에게 뭘 먹었는지 묻는다. 식사가 만족했는지, 어떤 반찬을 주로 먹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다. 그냥 하는 소리인지 모를 일이지만, 반찬을 물어보면 집에서도 보기 힘든 반찬이나, 특식(햄버거, 고기, 닭튀김)이 자주 있다.

늘 병사들과 같이 스텐그릇에 밥과 국, 두 가지 반찬을 담고 식탁에 앉으면 영락없이 군인 같은 기분이 든다.

취사반의 신병의 분위기는 어째 영 낯설다. 반찬을 나르는 손길이 집에서는 전혀 안하던 병사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 웃으면서 “집에 있을 땐 하지 않더니만” 하면 그들도 피식 웃는다. “제대하면 잘 해”하자, “씩~”한다.
병사들이 만든 밥을 퍼서 한 입 베어 먹어보는데, 밥이 아주 잘 되었다. 김치를 먹어보아도 양념이 잘 배어있고, 웬만한 식당 반찬보다 나았다.

부대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자기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놓고 반찬도 신세대

맞게끔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럼에도, 병사들은 배가 고픈 모양인지. 식사 후에 무언가 들고 있어서 물었더니 “라면하고 과자, 빵”이라고 답한다.
역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짬밥이다.

십자가 군병 되어

양구로 가는 길은 집을 떠나 5시간 거리이다. 출발 전에 군인교회에 제공할 물품을 분류하고 진심으로 은혜를 끼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양구에 가는 이유는 개척을 하여도 미자립이고, 부흥의 희망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황금어장을 향해 내 소명을 다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확신한다.
어떤 이는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가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한다. 그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언가 생겨야 하는 것이고, 소위 성공하는 목회여야만 하는 것이냐고.

이번 걸음을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한 연유가 바로 그것이다.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복음의 일꾼을 부르는데 어찌 못들은 척한단 말인가?

난 20년을 목회를 해 왔지만 여전히 아마추어 목회자이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이름 없이, 빛

없이도 복음을 구하는 곳에 간다.

오늘도 십자가 군병되어 주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겠다. 죽더라도 이 길을 걷다가 죽겠다.

진실한 성도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자.

바보 목회자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처절하게 아파본 적은 없었다. 여러 날을 금식 중에 아파하며 통곡한다.

먼저, 목회자인 자신의 죄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보처럼 살아온 것이다. 남처럼 약게 처세를 못하고 미련하게 시골교회, 미자립 교회만 전전하였다.

그것이 나의 죄이다.
그렇지만 내 작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전도를 위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 일을 사랑했다. 그 전도의 열매가 목사,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지금, 내 영혼이 몹시 슬프다. 정말, 참 신앙이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프다. 순수한 열정이 응답되지 못해 괴롭다.

오늘의 교회는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
요10:11"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비록 바보처럼 살고 있으나 나는 예나 지금이나 진실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일념뿐이다.

근 20년을 목회자로서 한 번도 사례비 없이 자비량 목회를 해 왔다.

첫 소명 받은 그 심정으로 주의 일에 내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다가 막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이 클 것을 믿어 위로받는다.

부사관들

이전에는 하사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군에서 지낸 원사부터 하사까지 있다.
민통선에서 북괴군과 대치하고 있는 동부전선 전방관측소(GOP)를 방문하여 파견근무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었다.

L 소위가 브리핑하는 전방상황을 통해 불과 2KM 앞에 있는 김일성고지를 망원경으로 보고 분단과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일에 실감이 되었다.
마침, GOP까지 군 차량 안내자가 25세 정도의 B하사였다. 상근 공익으로 근무하다가 하사로 자원입대를 하였다.
새삼 부대에서 부사관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씩씩하고 능동적인 청년들이다.
그들은 장교들을 대신하여 부대의 시설, 복지 관리와 병사들을 중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군인교회의 시설 보완과 관리로 인해 K 하사를 자주 만난다. 180CM에 경상도 억양의 머스마인데 예배당의 전기시설 보완, 관리와 잡초 제거 등 번거로운 일들을 맡아 처리를 한다.

식사 중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부사관들의 계급장을 보니 금색이었다. 마침 앞에 앉은 S 대위의 계급장은 은색이다.
그래서, S 대위에게 K 하사가 더 높은가 보다 했더니 무슨 뜻인 지 잘 몰라 어리둥절 한다.

계급장을 보라고 하니 그제야 뜻을 알고 웃었다.

20세 중반의 청년들이 청춘을 군에 바치기 위해 자원하여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뜨거운 태양 빛이 저들의 군모에 붙은 금색 계급장을 비추면 더욱 번쩍거리며 부대의 모든 곳에 밝은 빛으로 비춰준다.
부사관!, 그대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S 병사

S병사가 복무하는 본부포대는 교회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다. S병사가 한 달 정도 안 보이기에 일부러 병력 수송을 한다는 핑계로 본부를 방문하였다. 마침 S병사가 정문 근무를 마치는 것을 보고 교회로 데려 왔다.
차 안에서 S병사에게 “자네가 오늘 초병 중 제일 고참인가”하자 그는 “예”하고 답한다. “자네를 보니 오늘 의젓하더라. 교회에서는 다른 고참병 사이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부하들 하고 검문 근무를 하는 자네의 모습을 보니 고참 티가 나는데, 아주 의젓해”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
실은 S병사를 위해 기도하던 중이었다.
그의 부모가 면회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에게 하던 모습을 볼 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면회 온 어머니에게 S 형제가 뭔가 불만이 가득 차서 교회 뒤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투정을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어머니는 아들을 달래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는 화가 나지만 예배를 앞두고 있어 억지로 참는 모습이다.

S병사를 보면서 부모들이 조금 참고 기다리면

철없어 보이던 청년들이 군 생활을 통해 자기의 위치를 조금씩 찾아가고 제 역할을 통해 어른스러워져 가고 있다.
S병사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신앙이 성숙하여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 지도를 할 것을 재삼 다짐한다.

최귀숙의 隨筆

1999. 3. 문예사조 수필 신인상 등단
등단작품 "나의 기쁨"
조치원성모병원 간호과장 재직 중
가족:
남편 고봉환 목사와 아들 高志三 (군 복무 중)

나의 기쁨

지금 부엌에서는 구수한 고구마 굽는 냄새가 난다.

며칠 전 가스 오븐 레인지를 들여놨다. 어려운 때에 거금을 들여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 할인해서 팔기에 주위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결정했다. 주문을 하고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물품이 도착하자 아들이 나보다 더 좋아라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은 던져버리고 춤추며 달려들어 이리저리 살폈다. 돌려도 보고 눌러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갖고 싶던 오븐 레인지가 오던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품설명서를 읽고 또 읽으며 공부를 했다. 밤늦게까지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만들어 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장 담그기며 고추장 담기까지 익힐 정도였다. 결혼 후 우리 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 남편은 자주 주위의 외로운 분들을 초대하였으며, 나 또한 손님접대를 은근히 즐겼다. 그래서 한가한 날이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서로의 식성과 취향을 알아가면서 친근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하며, 아끼는 마음도 자라기 때문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나 행복하다. 이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몸이 피곤하다가도 신나게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뿐해진다. 맛있게 먹어 줄 사람만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끓이고 지지고 굽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론 유별난 것일지 모르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만일 내가 이 일이 즐겁지 않다면 남편이나 나나 얼마나 괴로우랴. 그런 면에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손님이 반가운 걸 보면

아마도 이런 것이 천성이 아닐까 싶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몸도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있기에 나가보니 손님이 네 분이나 오셨다. 저녁식사 시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몸을 추스르고 식사를 준비했다. 돌아가려고 나오시다가 식탁을 대한 분들의 놀란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려고 온 줄을 아는데 웬 진수성찬이냐 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서 아파서 조퇴한 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기분이 한결 나았다.

이렇게 음식 장만하는 것이 몸에 배이고 나 스스로 즐기다 보니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외식을 할 때도 자연히 조리 과정이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집에 와서도 흉내를 내 보고 분석도 해보곤 했다. 결혼한 지 십 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정요리는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는 점차 새로운 것을 요구했고, 나도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조리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아이가 원하는 음식은 요즈음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대중화 때문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 덕분인지 가끔은 특별주문을 한다.

유난히도 음식의 맛과 색깔에까지 관심이 많은 것은 나를 닮아서일 것이리라. 똑같은 음식도 이렇게 담아라 저렇게 담아라 하고 참견을 잘하여 때론 화가 나기도 한다. 아이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밥상을 다 차려 놓았을 때, “엄마, 나 냉면 먹고 싶어.” 하면 두말 않고 만들어 주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내 힘닿는 대로, 아이의 필요에 따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 줄 때 난 나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기쁨을 선물로 받는다. 어른인 나도 가끔은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저럴까하여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마음에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엄마의 큰 행복이 아닐까?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한다. "저 아이가 결혼하면 마누라가 꽤 피곤하겠다. 저렇게 요구 사항이 많으니"

하루는 롤케잌을 만들었다. 구수한 빵 굽는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고 내 마음도 빵처럼 잔뜩 부풀었다. 잘못 되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꼼꼼히 살피며 순서대로 만들었다. 구워지는 30분 동안 가슴이 뛰었다. 다 구워진 케잌에 딸기잼을 펴서 둥글게 말아 완성했다. 남편과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단번에 절반을 먹어치웠다. 내 마음도 덩달아 흐뭇했다. 빵집 앞을 지날 때 나던 그 맛있는 냄새가 우리 집에서도 날수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찾아드는 사람이 있다면 차를 곁들여 멋진 즉석 파티를 열 수도 있지 않은가. 마주 앉아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이 붕 뜬 것 같다. 이젠 또 무얼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손님이 오셔서 위층, 아래층으로 심부름을 하다보니 깜빡 잊고 설탕을 넣지 않아 단맛이 전혀 없는 싱거운 빵이 되었다. 뻣뻣하고 향기와 맛이 없어 그대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만한 일쯤이야 다반사지 하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와 감자를 구워 보기로 했다. 구수한 냄새의 어릴 적, 엄마가 아궁이에서 구워주던 시커멓게 그을린 감자를 먹던 때가 그립다. 그새 감자가 다 구워져서 훌륭한 간식이 만들어졌다. 아이가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생일 케잌을 굽고 멋진 장식도 부지런히 배워서 아이들 생일에는 내 손으로 생일상을 차려줘야겠다. 축하할 일이나 감사해야할 일이 있을 때, 맛있는 빵을 구워 내 마음을 전하고 선물도 내 솜씨로 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짜릿함이 있어서 좋다. 할 일이 하나 늘었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긴장되어서 좋고, 그것이 즐거운 일일진대 내 발걸음

도 가벼워져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피곤도 잊히리라.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니라.'

어머니

바람에 날리는 밀감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 찰 때면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진다.

나는 일찍 철이 들었던지 어머니의 아픔이 마치 내 일처럼 다가 왔었다. 그래서 용돈 때문에 졸라본 일도 없고 옷 사달라고 떼를 쓴 기억도 없다. 어머니는 나 말고도 올망졸망한 아이들 넷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오직 자식 생각에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을 무엇 하나 사실 수 없었던 내 어머니.

비가 오는 날 말고는 늘 들에 나가셨는데 난 어머니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했다.

내가 십대 후반일 때, 아이들 과외공부를 지도를 끝내고 호빵을 사 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는 무엇 하러 이런 걸 사 왔느냐고 야단이셨다. 난 어머니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야단을 듣고는 다시는 아무 것도 안 사오리라 결심했다.

여고를 졸업하고 고향 충주를 떠나 상경했을 때는 겨우 명절에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시집을 온 다음부터 낮엔 일하느라고 잠시 잊었다가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명절에 고향을 찾으면 며칠 동안 잠만 잤다. 아마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랬나보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싶으셨을 거

라는 생각이 왜 이제야 나는 걸까. 난 참 숙맥이다.

널 시집보내면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던 어머니. 내가 결혼한 후로는 정말 다리를 뻗고 주무셨는지 모르겠다.

그 먼 곳 제주도로 시집을 가면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못 보내겠다며 가지 말라고 붙잡던 어머니.

그래서 결혼 후에도 어머니께 고생스럽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친정에 가면 아무 것도 물어 보지 않으셨지만 초라한 내 행색이 안 되었던지 이것저것 챙겨 주셨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셨던 걸까.

新正과 겹친 아버지 추도예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처럼 친정에 다니러 갔다. 어머니를 뵙고 나서 우선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 오겠다며 나섰을 때만 해도 씩씩하게 음식을 준비하셨다.

서울 일을 마치고 친정으로 가다가 전화를 하였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기막힌 소식이 아닌가. 불과 하루 사이인데, 어제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다니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에 그리도 아옹다옹하시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 년을 못 넘기시고 아버지를 따라 가셨다. 그렇게 일찍 가실 거면 미리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실 일이지.

운명하시던 그 날부터 장례식 날까지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다. 평소에 든든한 빽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니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친구들의 위로에도 그저 멍하니 앉아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따로 사진을 찾을 것도 없이 내 머리에, 얼굴에, 흐릿해진 눈빛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묻어 난다. 음식을 만들 때든지 혹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듯하다.

내 아이를 보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더듬어 본다. 딱히 내게 무엇이 되라거나 어떻게 살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때대

로 나의 언행심사에서 어머니를 보는 듯하다.

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를 보고 싶어한다. 내 아이 앞에서 내 어머니처럼 삶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다. 이 다음에 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처럼 살터이니 말이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몹시도 그립다. 마치 지금 충주 집에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만 같다.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시다면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이제는 큰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어머니.

모 과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물에 씻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다른 과일과 비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맛이나 육질, 빛깔로도 여타 과일과 비길 수 없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당당하게 과일가게 한구석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진실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모과는 장미과 낙엽 교목으로 과수 또는 관상수로 심는다. 5월에 꽃이 피고 9월이면 누렇게 익는다. 키는 10 m쯤 되고 가지는 자갈 색의 윤기가 있으며, 잎은 어긋난 타원상 난형으로 윗 가장자리에 가는 톱니가 있어, 마치 장미 잎과 비슷하다.

수 년 전 이웃에서 모과나무 묘목을 얻어 우리 집 뜰에다 옮겨 심었다. 해마다 봄이면 숨죽이며 기다렸건만 도무지 꽃을 피우지 않는 거였다. 기다리던 내 마음을 아랑 곳 하지 않는 꽃과 잡초도 구분을 못하는 남편이 지저분하다며 뜰 안을 정리한답시고 모과나무를 베어버렸다. 내 희망을 송

두리째 빼앗긴 것만 같아 크게 화를 냈던 기억이 새롭다.

몇 해나 지났을까. 언제 새순이 났는지 비스듬한 가지가 내 키보다 훌쩍 넘게 자라있었다. 나는 꽃도 못 볼 바에야 저 못생긴 나무 뿌리까지 없애리라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무심히 뜰을 둘러보던 나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 모과나무 앞에 섰다. 모과나무 가지마다 촘촘한 봉오리를 보란 듯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숲의 요정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은 아주 작은 양산 같은 꽃봉오리를. 나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식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큰소리로 알렸다. 그러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담홍색 모과 꽃을 볼 수 있었다. 모과를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모과 꽃을 본 것은 처음이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찾아오신 듯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다.

모과 꽃을 보고 있노라면 무한한 에너지가 내게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무얼 하던지 새 힘이 솟는 것 같다. 하루가 즐겁고 감사가 절로 난다. 꽃을 보리란 소망을 접고 베어버리려던 나무가 이렇게 내 앞에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나매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십 여 년을 살면서 이런 저런 아픔으로 인해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많은 날들. 검은 현무암처럼 종내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까지 움츠러들어 한없이 외롭고 적막했었다. 마음 다부지게 먹고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하기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과나무가 꽃을 피웠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벌써 꽃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꽃은 마치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 소망을 이루리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듯하다.

백 묵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그 때는 중학교 입학 시에도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지금의 대학 입시만큼은 아니어도 늦게까지 공부를 했었다. 우리 집엔 형제가 여럿인데다 농사를 지어서는 아이들 공부를 시킬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기에 나는 한 권의 참고서도 살 수 없었다.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남으라고 하더니 교사용 참고서를 몽땅 주면서, 이걸로 공부를 하되 날마다 아침 자습문제를 내라고 하였다. 일 년 내내 방과 후에는 칠판 가득 문제를 쓰고는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는 즐거움이란.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도 공부할 참고서가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은 뿌듯했다.

선생님은 당시 미혼이었고 댁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였는데도 저녁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밤중에도 집집마다 찾아가 밖에서 둘러보곤 하셨다. 그런 날이면 다음 날엔 꼼짝없이 기합을 받아야만 했다.

한 시간 수업하면 반드시 시험을 쳤다. 시험을 치르고 난 후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엉덩이를 맞아서 얼얼했다. 얼얼한 엉덩이로 의자에 앉을 때의 그 고통. 그 때는 선생님이 얼마나 야속했던지. 중학교 입학시험 결과, 내가 수석합격자가 되었다는 발표를 보고는 나를 번쩍 안아주었고 신문에 난 내 얼굴을 보여주시며 아주 크게 웃으셨다.

지금도 백묵을 보면 그 때의 감촉과 닳아서 매끈했던 칠판이 생각나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던 그 때가 그립다. 만일 내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쯤 난 어떤 모습일까. 고향에 가면 선생님을 찾아뵙고 큰절이라도 올려야겠다.

산다는 것

이웃집에 아가가 태어났다.

엊그제만 해도 남산 같은 배를 잔뜩 떠받치듯 힘겨워 하더니, 한 밤중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자기네 승합차로 병원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아기가 아빠 얼굴이 더 빨리 보고 싶었는지 승합차 안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중도에 119 구조대까지 부르는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아기 탄생의 전화를 받으면서 산모에게 방심하다가 차안에서 낳았다고 '방차'라는 이름을 선사했다. 姓이 蘇氏이니 감히 '소방차'라는 별명을 지어준 격이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날, 모였던 분들과 함께 병원에 들렀지만 너무 일찍 방문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진다. 어른 팔뚝만한 몸에 꼭 다문 입술이 어찌 그리 이쁜지. 아빠를 쏙 빼 닮았다. 생명의 신비로움은 오늘 우리게 아기를 보내어 순수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번 아기는 순번대로 한다면 셋째이다. 둘째를 임신하고도 몇 개월이 못되어 유산을 하여서 슬픔 중에 있다가 다시 얻은 아기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회원들은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순산하였기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동행중엔 5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는 분이 있어 나는 내심으로 조바심이 났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들이 그분에게는 왜이리 어렵기만 한 것인지 무어라 위로를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무 기뻐하는 것도 미안한 것 같아 내 마음엔 속히 자리를 뜨고 싶었다. 아무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도 그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넋두리로 여겨졌을 것이다. 힘겹게 낳은 자식을 키우는 데는 또 얼마나 한 고통이 따르는지 하는 것은 나중 일이다.

그러나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식 사랑이려니. 부모 된

그 기쁨을 못 누린 그 이에게 그저 안 스러운 마음뿐이다. 언제 한번 편안한 만남으로 속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다.

나와 가까운 후배는 15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아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아가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그의 근황을 듣고 격려를 하였다.

산다는 게 그런가보다. 서로 다른 아픔을 간직하며 남의 것을 부러워만 하다가 가는……

나의 기다림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부장선생은 새내기 교사임을 고려했던지 4학년 여자 반을 내게 맡겨 주었다. 잘 가르치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을 내었으나 뭘 모르던 탓에 매 주일을 좌충우돌하며 지냈다.

어느 날 예배시간이었다. 옆에 나란히 앉은 아이들을 무심코 둘러보는데 하나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해서 나를 보니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얹고 그 위에 두 손을 모아 차곡차곡 포갠 내 모습을 흉내낸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출석을 부르면서 아이들과 눈 맞춤을 하다가 나는 다시한번 놀랐다. 어느 틈에 아이들 머리가 모두 단발로 변해 있었다. 그 순간 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그 해 여름나는 무슨 까닭인지 허리 밑

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미련 없이 단발로 잘랐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나는 이 십 대 초반 주일학교 교사 시절을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렇다고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이제라고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여전히 서툰 몸짓으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해 보려고 끙끙대지만 내가 무얼 가르친단 말인가? 내가 뭘 좀 안다는 것과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처음 맡았던 주일학교 교사시절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이 오기를 기다린다.

마음의 글

샬롬!
부족한 저희 부부의 글이지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출간합니다.

첫 시집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는 “도서출판 하늘기획”에서
2000년 4월에 출판하여 지금은 절판이 되었으나, e-book으로
한국문학도서관 출판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군인교회 사역을 2006년 3월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2년 9개월.
20대 청년, 그들의 삶 속에 갑자기 뛰어든 복음의 전설이 되고자
기도하던 시간들.
조치원에서 양구까지 다니기를 총 1,201,200km. 지구의 1/3을
다녔습니다.
가정을 떠나 양구에 거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늘 만족하
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군인교회의 상황과 목회의 한계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 제21보병사단 함형일 인사참모님 내외분께서
초기의 군 선교의 기틀을 신앙과 인격적으로 보충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방산 충성교회의 제직으로 충성을 다하신 이현기,
장계현 집사님 내외분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군 복음화 사역을 위해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신 김학, 조희주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두 번째 시집을 바보와 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최귀
숙에게 바칩니다.

2008.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고 봉 환

저자 소개

고 봉 환
1955년 부산 출생

목사
천안문인협회 회원

학력
그리스도신학대학 졸업
서울신학대학 목회대학원 수학

조치원 복음선교교회 담임 목사
제21보병사단 포병 연대목사 (2008년 현재)

1999. 3. 월간 문예사조 수필 "수요일 아침" 등단
1999. 5. 월간 문예사조 시 "간혹", "동갑내기 아내" 등단

2000년 4월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출간

최 귀 숙
1955년 충주 출생
조치원 성모병원 간호과장 재직 중

학력
제주 한라대학 간호과 졸업
방송통신대 간호과 졸업

1999. 3 월간 문예사조 수필 "나의 기쁨" 등단

200년 4월 "그리움에 목이 메이고" 공동출간

바보의 넋두리

2008년 12월 25일 발행

저 자 : 고 봉 환, 최 귀 숙
인 쇄 :
발행처 :
주 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87-42
가 격 :
선교후원계좌: 농협 473-12-326540 (고봉환)